

민주 '더 몰빵13 유세단' 전국 뚫는다

선대위, 국회서 유세단 출정식 장애인권리보장특별위원회 발족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공식선거운동을 하루 앞둔 27일 총력전을 펼쳤다. 민주당은 이날 '더 몰빵13 유세단'을 띄웠다. '더 몰빵13 유세단'은 '지역구 후보는 기호 1번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례대표 후보는 기호 3번인 더불어민주당연합'을 찍어달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연합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이다. 김부겸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유세단 출정식에서 "공식 선거

운동을 앞두고 민주당의 가장 젊은 병기들로 구성된 몰빵13 유세단이 출정한다"며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청년의 의기로 정치를 바꿔보자고 나선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세단은 앞으로 전국을 다니며 정권 심판에 대한 열정과 그것을 넘어서서 민주당이 책임질 것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고 호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의 파행을 보면 이대로 가다가는 공동체가 무너진다는 절박감이 든다"며 "(국민들이) 해당 지역 후보자와 함께 민주당을 돕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키우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 드리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유튜브 쇼츠(숏폼 콘텐츠) 영상을 통한 온라인 득표 활동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김 위원장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MZ 세대로 불리는 20~30대 유권자와의 스킨십을 늘리기 위해 가볍고 친근감 있는 소재로 쇼츠 영상을 제작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선대위는 이날 장애인 권향상과 사회참여 보장을 도모하기 위한 장애인 권리보장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서미화 특위 상임공동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윤석열-오세훈 정권이 갈라치기 혐오정치를 멈추고 시급히 대화에 나서도록 장애인권리보장 3자 협의체(민·당·정) 구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여성 시각장애인인 서미화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연합 비례대표 1번 후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공동선대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연합 윤영덕, 백승아 공동대표 등이 27일 총주 김경욱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현장 합동 선거대책 위원회의에서 정책 선언식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민주, 험지 충북서 표심 호소

이재명 "충주 사위" 부각... 기본소득 등 정책 홍보·정권 심판 당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총선을 2주 앞둔 27일 충청권 가운데서도 보수 세가 강해 '중원의 험지'로 꼽히는 충북을 돌며 '정권 심판'을 위한 한 표를 호소했다. 이 대표는 이날 충주와 제천, 청주의 시장과 상가를 방문했다. 자신이 '충주의 사위'라고 여러 차례 강조하며 충북과의 개인 인연을 부각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먼저 충주 김경욱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당연합 지도부와 합동 현장 선거대책회의를 열었다. 이 대표는 "지난 2년간 국민은 윤석열 정권에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줬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참을 만큼 참았지만, 돌아온 것은 민생 경제 몰락과 민주주의 파괴, 미래 실종, 평화의 위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출생 기본소득 ▲월세 1만원 임대 주택 확대 등 기본주택 ▲국립대 무상·사립대

반값 등록금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경로당 식사 지원 등 '기본사회 5대 정책' 공약을 약속했다. 이 대표가 지난 1월 제안한 출생 기본소득은 아동수당을 확대해 17세까지 1인당 월 20만원을 지급하고, 0세부터 18세까지 매월 10만원씩 펀드 계좌에 적립해 기본자산 1억원 마련할 수 있도록 하며 결혼 시 1억원 기본대출을 보장한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은 무능과 무책임으로 국민의 삶을 외면했다"며 "누구나 탈락하지 않는 적극적 복지로 나아가야 한다. 국가 책임을 강화해 누구나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든든한 토대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충주에서 기본사회 5대 공약을 내놓은 이유와 관련, "선거의 풍향계라고 불리는 충청에 각별한 관심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중대선거범죄 단호 대응"

노태약 선관위원장 담화

노태약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27일 "금품수수나 매수, 허위사실 공표 등 선거 질서를 해치는 중대선거범죄에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4·10 총선 공식 선거기간 개시를 하루 앞둔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절차뿐만 아니라 선거운동 공정도 중요하다"며 이처럼 밝혔다. 노 위원장은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는 선거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모든 공직자는 중립의 자세를 지켜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후보자는 허위사실과 비방 등 상대방에 대한 비난과 공격보다 실현할 수 있는 정책과 공약으로 정당당파에게 경쟁해야 하고, 유권자는 정당·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확인하고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4·10 총선 누가 뛰나

(민=더불어민주당, 국=국민의힘, 진=진보당... 사진은 기호순)

민주당 전통 텃밭...신정훈 3선 도전

나주·화순
21대 총선, 민주에 78.80% 몰표 국민의힘, 나주시의장 출신 출마



신정훈(민)



김중운(국)

나주·화순 선거구는 지난 21대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신정훈)에게 78.80%의 몰표를 던져준 지역이다. 사실상 '공천=당선'이란 등식이 성립하는 민주당 텃밭인데, 제한적 후보들 간 '리턴 매치' 형태로 경선이 치러지면서 '본선보다 뜨거운 경선'이 펼쳐졌던 선거구다. 지지 후보를 놓고 지역이 들, 셋으로 쪼개지는가 하면, 특정 후보를 겨냥한 반대 정선이 형성되고 이종두표 유도·조작 의혹까지 제기되는 등 공천 막판까지 경쟁이 치열했다.

그만큼 경선 후유증도 남아있는 상태. 경쟁을 펼친 후보들이 민주당 최종 후보에게 힘을 실어줘야 하는데 통합선거대책위원회에 참여했다는 소식은 아직 들리지 않는다. 당내 누적된 후보 간 갈등으로 '아름답고 감동 주는 화합'은 커녕, '원팀' 구성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지역 정치권에서 나오는 배경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에 대한 지지세가 뚜렷해 득표율에 더 관심을 갖는 모양새다.

민주당에서는 신정훈 후보가 3선을 위해 뛰어들었고 국민의힘은 김중운 전 나주시의회 의장이 나섰다. 진보당에서는 전남도의회를 지냈던 안주용 진보당 전 공동대표가 '정치교체', '선수 교체'를 내세우며 지역 민심을 훑고 있다. 3명의 후보들이 모두 나주 출신 후보들이라 화순 지역 발전을 약속하는 공약 발굴에도 신경을 쓰는 모양새다. 특히 모든 후보가 18세 이상 인구가 가장 많은 혁신도시(빛가람동·2만9539명) 주민들을 위한 공약과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나주 원도신 지역인 송월·금남·성북동 일대 활성화 정책 발굴을 통한 표심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신 후보는 치열한 경선 과정을 지나면서 경선 피로감에 놓인 유권자들에게 정책 공약을 지속적으로 발굴, 소개하는 형태로 유권자 마음 잡기에 공을 쏟고 있다. 2차례의 도의원(1995년·1998년)과 나주시장(2002년·2006년)의 경력을 바탕으로 지난 2014년 국회의원 재선거로 국회에 입성했지만 20대 때 국민의당 후보에 패했고 2020년 21대



안주용(진)

총선에 당선된 뒤 올해 3선의 강한 국회의원이 되겠다며 뛰고 있다. 신 후보는 특히 농민들이 많은 지역 현실을 감안, 수입 확대 일련의 농·축산물 물가정책 중단 및 농산물 가격안정제, 과수산업 육성지원법 등의 조속한 통과에 나설 것을 약속하고 있다.

국민의힘 나주·화순 당원협의회 위원장을 지낸 김중운 후보는 현재 한전 비상임이사로, 지난 2007년 나주시의원 보궐선거에 당선(무소속)된 뒤 2010년 지방선거 때는 민주당 소속으로 나주시의원에 선출돼 탈당, 무소속으로 나주시의회 의장을 지낸 바 있다. 2년 여 전 국민의힘에 입당한 김 후보는 "30년 넘게 보여준 무조건적인 민주당 지지 대신, 견제와 균형을 위해 집권 여당의 후보에게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김 후보는 동강면 간척지 일대 200만평에 방위산업체를 유치하겠다고 공약했다.

전 진보당 공동대표를 지낸 안주용 후보는 그동안 도의원선거(2014년), 국회의원 선거(2020년) 등에 출마하면서 얼굴을 알렸으며 이번 총선에서 새정치를 펼칠 새로운 선수가 필요하다고 지역을 돌고 있다. 안 후보는 지난 2010년 민주노동당 소속으로 전남도의원(비례대표)에 선출된 바 있다. 그는 나주엔 선거사무소를, 화순엔 후원회 사무실을 두고 지역민들과 소통하면서 화순탄광 폐광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육성단지 육성을 화순지역민들을 위한 공약으로 내놓았다. /김지우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 복구를 전진속 후보와 정권 심판"

민주 전현직 지방의원 원팀 선언

4·10 총선 더불어민주당 광주 복구를 경선에서 패한 이형석 의원의 조직이 경선 승리자인 전진속 후보와 함께 '원팀'으로 나갈 것을 선언했다. 민주당 소속 광주 복구를 지역구인 광주시의원과 광주 복구의원, 전 의원들은 27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10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압도적 승리를 위해 원팀이 되겠다"고 말했다.

복구를 전·현직 지방의원들은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폭정이 도를 넘었으며 임기 2년 만에 민생은 파탄 났다"며 "정부 여당은 광주 5월 정신을 꿰뚫어보지 못하며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후퇴시켰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복구를 전·현직 지방의원 모두 원팀으로 힘을 모아 윤석열 정부 심판과 전진속 후보 승리를 위해 함께하기로 결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광주 복구에서부터 전진속 후보와 함께 원팀이 돼 정권 심판, 국민 승리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김혜나 기자 khn@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785-0073

2024 고소득추천 목록

포포나무	계릭스 빅걸	선물리원×생노리스 품종의 교배를 통해 선발된 최고의 품종, 최대 과중 800g
	리만스 델라이트	프로리픽×생노리스 품종의 교배를 통해 육중된 품종, 달콤한 향에 뛰어난 품질을 자랑
	마리아스 조이	최대과중 631~704g, 년중 수확량 우수 유명 과수 학자가 지칭한 최고 맛있는 품종
사과	신품종부사 후지사과	잎따기와 반사필름을 깔지 않아도 동서남북 색상이 잘나고 저장성이 우수하며 신맛은 적고 최고의 맛을 자랑합니다
감	감풍, 원주	신품종, 추위에 강하고 수퍼 단감
	태추단감	배 맛이 나는 단감 중에 최고!
	슈퍼대봉	대봉중에 맛이 뛰어나 식재료를 많이 합니다.
업나무	민업나무	가시 없는 민업나무 가지 있는 것보다 수확이 2배가 나오고, 효능이 같습니다.
두릅	민두릅	가시 없는 민두릅, 참두릅, 정장두릅은 봄부터 가을까지 수확

사과,신품종 호두, 신품종 유실수 등 품종이 다양합니다.
※2024년 인기 품종으로 조기 품절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무는 "갑을농원"과 상담하세요!
모목 식재 및 재배 관리까지 무료교육, 무료상담 해 드립니다.

휴경지 노는 땅 상담해 드립니다.

모목상담 010-3121-7676
문의전화 053-856-1144
경북 경산시 하양읍 화성로 25
농협 703-02-497271(여름주 정준화)

갑을농원

펜션 급매매

전남 신안군 증도면 엘도라도 리조트 가기 전

- 대지 1,795㎡
- 건축 282㎡
- 연면적 438㎡
- 수영장 有
- 총 2개동 (객실실11개, 히노끼 욕조 6개)
- 1개 소매점
- 주차 15대 대
- 현재 주차장과 정원부지로 사용중인 밭(전) 1,320㎡ (무상양도)

매매가 9억 8천

010-3666-6301